

항공우주연구소, 중형항공기 사업 현장 실태조사 실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총괄 주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KARI)는 8월 7일(월)~8일(화) 동 개발사업 1차년도 중간개발 결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개발기관 주관회사인 삼성항공을 실시했다.

이번 실사는 7월 24일 통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평가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동 실사에는 이동호 서울대 교수를 비롯 통산부 및 KARI에서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중형항공기 사업 1차년도 평가위 개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1차년도 실적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조옥찬 인하대 교수)가 지난 8월 16일(수)과 17일 양일간 대전 항공우주연구소(KARI)에서 열렸다.

동 평가회의에서는 각 해당 분야별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발표와 통산부·대학·연구소 등의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

성된 평가위원회의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내용은 지난 8월 7일, 8일에 수행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총괄주관기관 자체평가 결과, 1차년도 시제개발 사업 결과 및 2차년도 계획, 1차년도 설계검증사업 결과 및 2차년도 계획, 그리고 1차년도 품질인증사업 결과 및 2차년도 계획 등이다.

이날 발표된 2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오는 10월까지 한·중 최종협상을 완료하여 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1월에 예정된 강택민(江澤珉) 주석의 방한시 정부간 조인을 계기로 본 계획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가위원회는 1차년도 실적에 대해 기술내용의 질적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았으며, 주관업체와 참여기업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권고했다. 또한 예산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키 위해서 개발 기자재의 통합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차년도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국제공동설계팀 가동 이전에 국내 참여업체간의 구체적 역할분담 및 세부일정 수립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을 당부했다.

다목적 실용위성 제9차 본체분과 심의위원회 개최

KOMPSAT사업 본체분과 심의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지난 8월 4일(금) 통상산업부에서 열렸다.

2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연구목표와 본체 및 부분체 개발 예산 등이 논의됐다.

2차년도 주요 연구목표는 시스템 요구조건 설정 및 위성 본체 시스템 설계 완료, 위성 본체 및 부분체 예비설계 완료, 부분체 해석 및 시뮬레이션(Simulation) 수행 등이다.

또한 본체 및 5개 부분체별 2차년도 개발예산(주관기관)은 총 11,34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본체가 4,544백만원(항우연), 구조/열 제어계가 1,042백만원(대한항공, 두원중공업), 자세제어계 1,936백만원(대우중공업), 전력계 1,610백만원(현대기술개발), 추진계 610백만원(한라중공업, 한화), 원격 측정명령계 1,602백만원(삼성항공) 등이다.

한편 이날 심의된 본체분과 2

차년도 사업계획서는 이달 중에 개최될 예정인 제12차 추진위원회에 상정된다.

경상대, 항공기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국립 경상대학교(총장 서영배)가 오는 8월 25일(금) 「항공기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을 주제로 항공기산업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동 대학이 주최하고 항공우주협회와 기계연구원(KIMM), 항공3사 및 두원중공업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협회 광병구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항공산업계를 대표하는 6명의 인사들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다.

발표 주제 및 연사는 다음과 같다.

- 항공기산업의 현황과 전망: 광병구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 육성방안: 이원걸 통산부 항공우주공업과장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개요 : 최동환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사업담당
- 기본훈련기 개발 현황: 조대환 국방과학연구소 제3본부장
- 항공기 소재·부품산업 육

성방안 : 김학민 기계연구원
 창원분원장
 · 경남지역 특화산업 - 항공기
 산업 : 이상정 경상대학교
 공과대학장

후지 벨205-B 헬기 초도비행에 성공

일본의 후지 중공업이 민간용 다용도 헬리콥터로 후지 벨205-B형 기종의 개발을 추진중이었는데 최근 동사 우쓰노미야 공장의 헬리포터에서 국산 1호기의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후지 벨205-B형은 미국 벨사와의 면허 생산계약에 따라 제조된 국내 제조기로 종래 후지중공업에서 만든 후지 벨204-B형기의 후속기로 투입될 예정의 최신 기종이라고 한다. 후지 벨205-B형기는 달아 올리고 내리는 조하 능력을 종래의 18톤에서 23톤으로 높이고 입의 장비품으로 카고훅, 구조형 호이스트, 담가장치, 씨치라이트 등을 준비할 수 있고 물자수송, 방재, 구난 등 폭넓은 운용 용도에 쓰일 기종이다. 또 조종계통의 유압장치를 이중으로 하여 만일에 대비하고 승객좌석을 편안하게 만들고 정비비용과 연료의 절감을 기하는 등 안전성과 경제성도 크게 강화했다고 한다.

동사는 초도비행후 정비하여 가을에 형식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음속 풍동 97년 설치 194억원 투입

항공기개발을 위한 시험설비인 이음속풍동이 오는 97년까지 국내에서 제작, 설치된다.

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수행해온 중형 이음속풍동 개발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8일 대덕단지내 연구소에서 현대중공업과 이음속풍동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이음속풍동은 폭 4m, 높이 3m, 길이 10m의 시험부에서 최대초속 110m(시속 400km)의 유속을 내는 설비로 전체가 약 6천6백㎡(2천평)의 부지에 설치된다.

세계 일류 수준의 성능을 갖춘 이음속풍 동을 오는 97년까지 제작, 설치하는데는 시운전이 끝나는 98년까지 모두 1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사 이동

▶ 漢擘重工業(株)

- '95. 8. 17 대표이사 사장 강경호(康景豪)